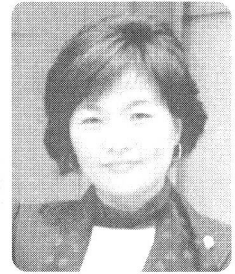


【특집 I : 2012년 새로운 변화와 대응방안】

# FTA 이후 사료산업의 구조개편 방향



김영란

축산신문 국장,  
본지 편집위원

한국 축산업이 재편되나?

한국 축산업은 그동안 부업농에서 가족농, 전업농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빠르게 기업농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축산업의 중심에 하림과 이지바이오 등 대기업이 자리함에 따라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협동조합대 대기업 구도로 판이 짜여 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농협(축산경제 대표분야)에서는 CJ 제일제당 원주 사료공장 인수 뿐만 아니라 강원 LPC도 인수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한창이다. 이는 3월 2일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협의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삼양사 사료공장을 이지바이오 자회사인 아이피드가 인수함으로써 대기업 구도로의 축산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국내 축산업은 협동조합과 대기업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축산농민들은 이같은 변화가 농가 자신은 물론 한국 축산업을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과 협동조합과의 경쟁 구도와 함께 중소농이 두터워야 한국 축산업의 뿌리가 튼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한국 축산의 구조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카길그룹의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 이지바이오, 사조그룹, 동원, 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인 카길 소속 기업으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평택에 대규모 사료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길은 곡물에서부터 인프라가 잘 갖춰

져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림그룹 역시 글로벌 기업을 모토로 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 종돈, 육가공, 동물약품 등 사육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앞으로 계열화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림그룹에는 사료 및 육가공회사로 천하제일사료, 선진, 팜스코가 있으며 썸벤이라는 동물약품회사 뿐만 아니라 물류, 심지어 캐피탈도 포진돼 있다. 앞으로 하림의 행보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도드람B&F 등 사료회사를 경영하면서 수십 개의 양돈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종돈사업에도 발을 들여놨다. 여기에다 도축장과 계육사업에도 이미 뛰어들어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지바이오의 행보에도 역시 적지 않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조그룹 역시 부국사료를 가족사로 두고 대표적인 육가공업체인 남부햄을 인수하면서 양돈장을 매입하는 등 양돈사업에도 본격 진출했다. 최근에는 함평에 육가공 공장 설립에 나선데 이어 1일 생산 130톤 규모의 대원사료도 인수했다.

동원그룹도 충남 논산에 있는 선진사료를 인수, 동원팜스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했다. 해태유업도 사들여 유가공업에 진출했다. 앞으로 축산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월 2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형태의 새로운 농협이 탄생되면서 농협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 더 경제사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 협동조합과의 경쟁구도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 사료판매도를 보면 대군 농가를 포함한 계열화 시장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OEM도 무려 1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구조다. 실제로 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고작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위농협이라든가 도소매를 통한 판매는 3.3%.

이를 보더라도 대기업을 통한 계열화가 차지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FTA시대에 계열 농가와 일반농가와와의 경쟁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